# 농어촌공사, 태풍·집중 호우 대비 수리시설 복구 총력

배수로·수리시설 등 선제적 정비···역대급 폭우에도 일부 시설 피해 31일까지 반월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 진행···수변전설비 교체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반복되는 '극한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점검·복구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지난 16~20일 광주·전남 등 전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및 배수 장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태풍 및 추가 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 복구·확충에도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집중 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앞서 올 초부터 여름철 많은 강우량이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수리시설및 배수로 정비에 나섰다.

이번 폭우에 앞서 지난 4~6월 상습 침수구역과 타작물 재배지,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4129㎞의 농업용 배수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전국 최대 농지인 전남의 경우 지난달 모든 지사들을 동원해 배수장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 하는 한편 저수지 관리 수위를 70~8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방 확인 및 배수로 퇴적물 제거 여 부 확인 등의 활동도 강화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도 '호우 사전 준비회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집중호 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 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수리시설이 피해를 이어다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송촌배수장'과 '산호배수장'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17일부터 나주에만 373.6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영산강 제 1지류 고막원천이 범람해 각 배수장의 기관실이 침수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피해를 입은 배수장 2곳을 비롯한 전국의 침수피해 수리시설의 복구에 집중하고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나주시 다시면 송촌배수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있다. 현재 송촌배수장은 엔진양수기 7대, 수중펌 프 7대, 대형발전기(300kWA) 1대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반월지구 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펌프 및 수변전설비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호배수장도 엔진양수기 9대 설치 및 침수된 수

중펌프와 접속반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추후 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역대급 폭우에도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까지 가능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

공사는 실제 올 봄부터 진행한 수리시설 및 배수 장 등 상시 점검 외에도 집중호우를 앞두고 저수지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방류를 실시해 12억 t 의 저류 효과로 하류부 침수피해를 완화했다는 평가를 바느다

또 누적 7179명의 인력을 투입해 824개 배수장을 가동하는 등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줄이는 데도

지난 20일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체 직원들에게 "피해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고,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 공공기관 최초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교육' 시행

#### 'KEPCO 에너지드림 스쿨' 입교식…고졸 정규직 필기 가점 부여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공공기관 최초로 '직업 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지원사업인 'KEPCO 에너지드림 스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 력개발원에서 에너지드림 스쿨 입교식을 개최했 으며, 입교식에는 한전,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및 교육생 50명이 참석했다.

에너지드림 스쿨은 고교 인재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등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AUCL

이는 지난 3월 26일 한전과 교육부가 체결한 '고 졸 채용 확대를 위한 한전-교육부 업무협약'의 후 속 조치로,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된 사례로 관하다

에너지드림 스쿨은 4주에 걸쳐 140시간의 집합 교육으로 구성되며, 교육생은 교육부 추천, 자격 증가점 및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등을 합산해 선발

했다. 351명이 지원했으며, 기술직 30명, 사무직 20명 등 총 50명이 최종 선정됐다.

교육 내용은 전력산업 및 에너지정책 기초 이해, 직무 관련 기초지식 습득, 전력설비 현장 견학등 이론과 실습이 모두 포함됐으며, 교육 우수자에게는 한전 고졸 정규직 채용 시필기전형 가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이번 교육에서 상위 20% 교육생에 게는 필기전형에서 5%, 상위 21~50%에게는 3%의 가점이 각각 부여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탄소중립 실현…한전KDN, 대한민국환경대상

### 환경경영 실천·확대 보급 기여

한전KDN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헌정기념관 국회체험관에서 진행된 '제 20회 2025년 대한민 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분야 탄소중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환경 분야 대표 상으로, 생활환경부터 생 산, 유동 소비, 서비스 등 전 과정에서 환경보전, 지 속가능경영,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개 인의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전KDN은 2021년 자체 구축한 환경 실천 브랜드 'KDN Eco-Life' 운영을 시작으로, 폐전자제품 친환경 처리, 순환자원 전용 재활용 공간 운영,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릴레이 플로깅등 환경보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KDN은 적극적인 환경경영 실천 및 확대 보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공분야 탄소중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전KDN은 행동하는 환 경경영 외 사업의 영역에서 친환경 솔루션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 수소시범 도시 수소에너지 전주기 통합 운영플랫폼 구축, 해 상풍력단지 운영 솔루션 구축, 스마트시티·산단 내 에너지 통합관리 솔루션 등 탄소 저감 기술 확 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한전KDN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인 'CHA-ON SUPER STATION'을 지난해 12월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에 구축하고, 개방함으 로써 국가정책 이행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기차 충 전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청렴문화 확산…한전KPS, 노·사·감 4대 부패 클린업 선포식

#### 공동실천 협약…'청렴이음단' 신설

한전KPS는 "지난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노-사-감' (노동조합-회사-감사실)이 함께 '4대 부패 클린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한전KPS가 4대 부패 취약요소로 선정한 인사보상 불만, 소통문화 부족, 부패통제 불신, 거래회사 불만 등을 해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김홍현 한전KPS 사장과 김종일 노조위원장,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4대 부패 클린업 공동실천'을 위한 협약을 맺고, 노사 대표가선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공정·청렴 기관으로의도약 의지를 밝혔다.



선포문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이 먼저 다가가는 쌍방향 청렴 소통문화 정착,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윤리규범 고도화를 통한 부패통제체계 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전KPS는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4대 부패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계층별 청렴소통 채널인 '청렴 이음단'을 신설하고, 거래회사 대상 청렴 포켓북 발간, 고위직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